

2026년 누리과정 포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우리 가족 놀이 실천 사례 공모전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놀이터는 '우리 동네'였습니다.
저는 5살, 8살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도록 성남 구도심의 오래된 빌라촌에서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빌라에서 첫째를 낳았고, 아이를 안고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면 비탈진 골목과 빼곡하게 주차된 차들뿐이라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흙을 밟으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경기광주 외곽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신도시도, 멋진 대형 공원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 근처에 흙을 밟을 수 있는 작은 공터가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규모는 작지만 집처럼 따뜻한 분위기에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며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작은 어린이집과 허름한 놀이터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고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매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추밭에서 흙을 만지며 마음껏 뛰어놀았고, 흙냄새를 맡으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주말이면 아이와 꼭 바깥놀이를 나갔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강아지풀은 최고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강아지풀을 손으로 살랑살랑 흔들며 서로의 볼과 팔을 간질이고 깔깔 웃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강아지풀을 따라 뛰어다니며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뭇잎 하나도 특별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을 주워 기쁜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을 그려 '나뭇잎 감정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야?"라고 서로 묻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친구와 텃밭놀이



엄마랑강아지풀



나뭇잎 감정카드놀이



고추밭 흙놀이

비가 오면 공터는 질퍽한 진흙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길을 만들고,
 물길을 연결하고, 작은 웅덩이에 돌을 던지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는 옷이 더러워질까 걱정하기보다
 함께 흙을 만지며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이면 도토리 한가득 주워 작은 돌과 나뭇가지를 곁들여 '도토리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도토리 비빔밥이에요.", "이건 형아 국이에요." 하며 상상 속 식당이 열렸고, 형제는 역할을 나누며 함께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와 만든 도토리 밥상

주말에는 집에서 조금만 이동해 중대물빛공원을 찾았습니다. 저수지를 따라 키크보드를 타고 천천히 한 바퀴를 돌며 바람을 맞고,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늘 "또 가자!"라며 다음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

중대물빛공원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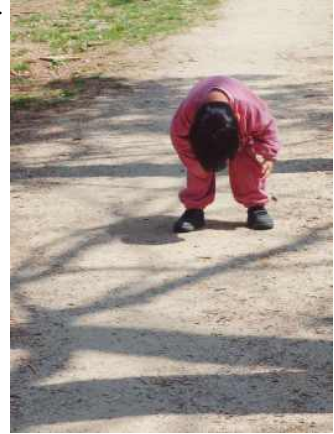
공원에서 지렁이와 만남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는 비싼 키즈카페도, 화려한 놀이시설도 아니었습니다. 집 앞 공터와 숲길, 공원, 그리고 계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동네였습니다. 자연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놀이를 만드는 힘을 길러주었고, 형제는 함께 협력하고 양보하는 방법

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조심해."라는 말보다 "한번 해볼까?"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동네로 나갑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놀이터는 언제나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같은 광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집 뒤편에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숲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는지, 어떤 새소리가 들리는지,
어제와 달라진 계절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며
걷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가족의 대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은 멋진 키즈카페나 값비싼 체험보다
동네의 공원, 숲, 공터, 장난감도서관 같은 지역사회
자원 덕분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쉽게 지나쳤던 공간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배움터였고, 부모인 저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었습니다.

맛벌이로 늘 시간이 부족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놀았는지가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흙을 밟으며 웃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형제는 더 가까워졌고, 가족의 대화는 더 많아졌으며, 저는 좋은 부모란 특별한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내어 같은 공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기광주중대물빛공원



경기광주중앙공원



경기광주청석공원

지금도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보다 "오늘은 숲에 갈까?", "공원 한 바퀴 돌아."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역사회는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추억을 쌓아온 가장 큰 놀이터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가까운 동네에서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며, 놀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